

# 멀티모달 번역 도구로서의 타이포그래피: 시 번역 교육을 중심으로

선영화(한국의국어대학교)

## 1. 서론

글자의 형태와 배치,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미적 효과를 자아내는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특정한 정서와 감정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도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된 텍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특정한 정서와 감정을 환기하는 타이포그래피



상기에 제시된 커피 브랜드의 레트로 에디션 광고(좌측)는 1980-90년대 느낌이 물씬 나는 서체와 색깔 조합, 텍스트 배치로 소비자에게 지난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켰고(운아름, 2020), 국내 여행 플랫폼에서 브랜드 서체로 개발한 ‘잘난 체 시리즈’(우측)는 ‘여행심’을 자극하는 경쾌하고 친근한 느낌의 폰트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 입상했다(소장섭, 2025). 이러한 사례는 의미를 시각적 요소로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가 소비자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심리적 반응이 곧 브랜드를 향한 긍정적 태도와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방증한다.

비단 상업적 맥락에서만 타이포그래피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의 내용이나 번역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체의 종류나 색깔, 구성을 선택적으로 조정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학생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반응이나 해석적 사고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아닌 ‘번역 교수자’의 입장에서 타이포그래피 등의 시각기호를 번역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 즉 언어·시각·청각 등의 다양한 기호 양식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한다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영상 번역 등 일부 분야에서 시각 이미지를 고려한 접근 방식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언어기호와 시각기호가 하나로 결합된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잠재력(meaning potential)은 번역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암시하듯, 문자 그 이상의 방식으로 정서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묵시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학, 특히 시 번역 과정에 타이포그래피를 접목한 창조적 번역 교육의 잠재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서체의 형태·크기·색깔·배치·정렬 등의 타이포그래피 구성 요소는 학습자가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이해를 언어기호와 시각기호가 결합된 형식으로 재현하게 하는 전략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타이포그래피 활용이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언어적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타이포그래피가 주로 디자인 및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는 개념인 만큼 시 번역에서의 활용이 원문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언어적 의미뿐만 아니라 운율, 행갈이, 시각적 배열 등의 다양한 형식적 요소를 통해 시적 의미를 생성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시 번역의 충실성은 내용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형식과 정서의 재현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 번역은 원문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되는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이며, 번역가의 자의적 유희가 아니라 원문에 대한 책임 있는 해석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학생들이 원문의 의미, 형식, 정서 등을 분석한 뒤 그 해석을 근거로 타이포그래피를 선택하도록 하는 번역 교육을 구상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학습자의 번역 결과물에 전통적인 번역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타이포그래피가 시 번역 과정에서 해석적·표현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본 연구의 맥락에서 번역의 ‘질’(quality)은 표현의 충실성이나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니라 원문에 담긴 의도와 학습자의 해석이 번역 결과물에 구현되는 방식 및 전략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영국 시인 에드워드 리어(Edward Lear)의 난센스 시 번역 실습에 타이포그래피를 접목하는 번역 교육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번역 결과물과 번역 코멘트를 분석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양상과 그 유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 학습자가 시를 읽고 해석하며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에 주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시각적 요소와 결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 번역 교육의 의의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멀티모달 번역 연구

번역 연구에 비언어기호를 접목하여 텍스트의 의미 구성 양상을 조명하

려는 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번역 연구가 주로 언어기호의 등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초 사회기호학적 관점의 ‘멀티모달 커뮤니케이션’(multimodal communication)이 크레스와 판 레이우언(Kress & Van Leeuwen, 2001)에 의해 이론적 체계를 갖추면서 번역을 다양한 기호 자원의 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 속에서 이미지, 색깔,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의 여러 기호 자원이 결합된 텍스트가 활발히 생산, 소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광고 번역(Freitas, 2004; Millán-Varela, 2004; Rodríguez-Arcos, 2024), 문학 번역(마승혜와 김순영, 2021; 성승은 등, 2022; 이경희, 2022), 영상 번역(박건영과 조성은, 2025; 선영화, 2021), 포스터 번역(신나안과 신진원, 2017), 뮤지컬 번역(홍정민, 2022; Carpi, 2020) 등 여러 기호 자원이 복합적으로 배치된 멀티모달텍스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로드리게스-아르코스(Rodríguez-Arcos, 2024)는 소셜 미디어 광고 번역을 중심으로, 멀티모달텍스트 내에서 수용자의 해석을 촉발하는 기호 요소(프롬프트)의 작동 방식과 위계성을 논하였고, 만화 「Thorgal」의 폴란드어 번역본을 멀티모달 관점에서 조명한 보로도(Borodo, 2015)는 만화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모드와 시각 모드의 상호작용이 번역 과정에서 의미 구성과 변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고찰하였다.

문학 번역과 관련해 성승은 등(2022)은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결합된 문학 작품의 번역본을 탐구하여 언어유희와 리듬의 상호 연결성, 그림 자원의 활용 가능성, 정서 전달을 위한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아이코노텍스트(iconotext) 개념을 그림책에 접목한 이성엽(2017)은 언어 요소와 비언어 요소가 가시적으로 융합된 ‘그림 속 텍스트’라는 특수한 서사 도구가 번역의 사각지대로 남겨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림 속 텍스트도 문자 텍스트와 동등하게 그림책의 서사 전개에 기여하며 분석적 읽기 및 번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영상 번역 분야에서 선영화(2021)는 슬랩스틱 애니메이션 「라바 아일랜드」의 화면해설을 분석하여, 원작에서 멀티모달리티로 구현된 유머가 화면해설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정민(2022)의 연구에서는 뮤지컬 「썸씽로튼」에 내재된 상호 텍스트성의 번역 특성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대사·가사·동작·음악·소품 등의 상호작용 양상을 탐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는 비언어기호의 의미 구성력과 설명력을 언어기호와 동일한 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번역 연구에서 멀티모달 접근의 이론적·방법론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복합적 기호 자원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는 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분석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번역가가 주체적으로 멀티모달텍스트를 번역·재창조하거나 다양한 기호 자원을 번역 도구로 활용하는 관점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일부 연구 사례에서 ‘텍스트 생산’과 ‘번역’이 결합된 형태의 멀티모달리티 번역 교육을 시행(선영화, 2025; Laviosa, 2007)하거나, 영화 등의 멀티모달텍스트를 대상으로 복합 모드를 고려한 번역 실습을 진행한 사례(최진실, 2019) 등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광고 텍스트나 영상물 등 본질적으로 복수의 기호 자원이 사용된 장르로 연구 범위가 집중되어 있고, 번역가(학생)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드의 범위와 개입 방식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진보로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번역 연구 및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기호와 시각기호의 교차점에 있는 특수한 기호 자원인 타이포그래피는 멀티모달 번역 논의에서 번역가의 기호적 개입과 재창조 양상을 탐구할 수 있는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번역 수행을 텍스트의 ‘언어적 재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기호 자원을 활용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확장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2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잠재력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의 형태와 배열을 통해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글자 자체로 또는 그림과 결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김승연, 2013, p. 26). 귀나이(Günay, 2024, p. 1446)에 따르면,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의 의미와 감정을

강화하고, 시각적 계층 구조를 형성하며, 목표 독자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디자인이나 미술, 예술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정근수, 2017, p. 3). 예컨대 박수진(2014)은 박물관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타이포그래피 상관 요소(공간·방향·위치·보조도형)를 활용한 시각적 정체성의 구축 방식을 논하였고, 윤재성(2001)은 근대 디자인 운동과 타이포그래피의 변천 양상을 조명하며 다양한 시각적·실험적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탐구함으로써 시각 이미지 표현의 잠재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홍지경과 김성계(2024)의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타이포그래피를 제목 및 표지, 조형적 요소, 어조 등의 세부 요소로 분석하여 아이코노텍스트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타이포그래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번역학 내에서 타이포그래피가 핵심 연구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텍스트의 변이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 항목으로 다뤄진 사례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혜영(2022)은 영화 포스터 카피의 글자 크기 및 색상, 서체, 위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타이포그래피의 변화가 카피의 언어적 의미와 설명, 광고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서체 디자인을 웹툰 텍스트 구조의 보조 요소로 바라본 김수명과 이지민(2017)은 웹툰 「신의 탑」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글자체, 크기, 색상 등 서체 디자인에 담긴 의사소통적 기능이 번역 결과물에 재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스워스 등(Unsworth et al., 2014)은 그림책 『STUCK』의 영어 원문과 스페인어 번역본을 비교하여 타이포그래피와 언어 선택의 차이가 텍스트의 의미 구성과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타이포그래피를 세부 분석 항목으로 설정한 연구(송희진과 문철, 2014; 이지민과 마승혜, 2022; 최희경, 2024; Wicaksono et al., 2021)가 존재하지만, 연구 주제나 방법론 측면에서 여전히 양적·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텍스트 분석에 치중한 기존 논의를 넘어 타이포그래피를 번역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실천적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은 타이포그래피가 거의 항상 다른 의사소통 양식과 함께 작용하며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기호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주변적 요소로 간주하는 관점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Van Leeuwen, 2006, p. 14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역학의 연구 공백을 메우고 타이포그래피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멀티모달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 실습을 설계하였다. 멀티모달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판 레이우언(Van Leeuwen, 2006)은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고안한 시각이미지 문법(grammar of visual design)을 근거로, 타이포그래피가 문자와 마찬가지로 3가지 메타 기능(metafunctions)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이포그래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행동·속성 등을 표상하는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대상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태도를 구성하는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 구성 요소 간의 연결성(links)과 결속성(cohesion)을 시각적으로 조직하는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을 수행한다(Machin, 2016; Van Leeuwen, 2006).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로서의 언어’로 간주하고, 데이비드 마친(David Machin)이 제시한 ‘타이포그래피 의미 잠재력 목록’을 적용하였다(Machin, 2016, p. 93). 이 분석 틀은 사회기호학적 관점의 시각이미지 문법(Kress & Van Leeuwen, 1996), 타이포그래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Van Leeuwen, 2006), 텍스트 배치 및 정렬 형태에 따른 효과(Lupton, 2004) 등을 통합한 멀티모달 분석 틀로서,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잠재력과 관련된 분석 항목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잠재력 항목 및 세부 요소(Machin, 2016을 기반으로 정리)

분석 항목	세부 요소
서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형태</li> <li>- 두께(weight), 폭(expansion), 기울기(slope), 규칙성(regularity), 글자 비율(orientation), 곡선성(curvature), 장식성(flourishes)</li> <li>■ 글자 색깔</li> <li>- 색상, 밝기, 색조, 대비 등</li> </ul>

텍스트 배치 및 정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렬 방식</li> <li>- 양쪽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li> <li>- 양쪽 불균형+대칭성, 양쪽 불균형+비대칭성</li> </ul>
----------------	--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잠재력 목록 중 서체 디자인을 살펴보면, 글자 두께(weight)가 굵고 무거울수록 견고한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반면 두께가 얇은 글자는 섬세함과 겸손의 이미지를 전달한다(Machin, 2016; Van Leeuwen, 2006). 다만 이러한 의미 잠재력은 상황 맥락에 따라 부정적 의미로도 구현될 수 있어 두꺼운 글자는 거만한 느낌을, 가느다란 글자는 경직되고 허약한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다(Van Leeuwen, 2006, p. 148). 서체의 폭과 너비(expansion)는 텍스트에서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과 연결된다. 예컨대 가로 폭이 넓은 글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존재감 및 공간감을 나타내며, 폭이 좁은 글자는 소박하면서도 겸손한 면모를 암시하지만 상황에 따라 제약과 한계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Machin, 2016, p. 96). 한편 서체의 기울기(slope)는 손글씨와 인쇄본의 차이로 가늠해 볼 수 있다. 흘려 쓴 손글씨처럼 기울기가 느껴지는 서체는 비격식적이면서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인쇄본처럼 기울임이 없는 서체는 격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느껴진다(Van Leeuwen, 2006, p. 148). 서체의 규칙성(regularity)도 특정한 의미 잠재력을 지닌다. 규칙성이 높은, 즉 단정하고 정형화된 서체는 질서와 형식, 안정감을 전달하지만, 규칙성이 낮은 서체는 혼돈과 자유로움, 유희성(playfulness)의 정서를 자아낸다(Machin, 2016, pp. 101-102). 서체의 전체적인 비율(orientation)은 글자의 높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세로로 높게 뻗은 글자는 고귀함과 포부, 때로는 거만함을 상징하며, 납작하거나 낮게 표현된 글자는 건실함과 안정감을 전달하지만 타성과 관성의 이미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Machin, 2016; Van Leeuwen, 2006). 서체의 곡선성(curvature) 여부도 서로 다른 의미 잠재력을 갖는다. 곡선이 많이 포함된 글자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 강한 반면, 직선성이 강한 글자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 지배적이다(Machin, 2016, p. 99). 또한 글자에 장식적인 요소(flourishes)가 많이 포함된 서체는 예술성과 화려함, 상징성을 나타내지만, 장식성이 낮은 서체는 단순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자아낸다(Machin, 2016, pp. 102-103).

이러한 서체 디자인의 의미 잠재력은 진공 상태에서 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속에서 색깔, 텍스트 배치 등의 의미 요소와 결합되어 발현된다(Machin, 2016, p. 93). 먼저 색깔은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분류하고 구별하며 요소 간의 연관성을 형성하는 타이포그래피적 특징으로 활용되는 자원이다. 특히 특정한 정서 및 사회적 의미와 연관되며,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잠재력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호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Serafini & Clausen, 2012, p. 9)

색깔은 하나의 의미 요소로서 (타이포그래피와 마찬가지로) 3가지 커뮤니케이션 기능(메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색깔을 통해 인물, 장소, 사물 등 현실 세계의 특정 대상을 지시하거나 연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흰색은 순수함과 진실을, 검정색은 그 반대 의미를 연상시키며, 짙은 파란색은 영국 등 특정 문화권에서 높은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로 인식된다(Machin, 2016, p. 65). 둘째, 색깔은 정서적 분위기나 태도, 또는 수용자(독자)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연관된다. 예컨대 색깔의 밝기, 대비, 채도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친근감, 거리감, 긴장감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색깔을 통해 텍스트 안에서 시각적 일관성과 결속성, 균형감, 대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색깔 구성은 다른 의미 자원(서체, 정렬 등)과 결합해 통합적인 메시지를 구축·전달한다(Machin, 2016, pp. 66-67).

한편 텍스트의 배치와 정렬 방식은 텍스트가 전달하는 분위기와 느낌을 결정하고 독자에게 특정한 해석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타이포그래피의 대인적 기능에 포함된다(Machin, 2016, p. 105). 가령 양쪽이 고르게 정렬된 텍스트는 높은 형식성과 효율성, 권위의 이미지를 전달하지만, 왼쪽만 정렬된 텍스트는 이보다 형식성이 낮아 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준다. 또한 오른쪽만 정렬된 경우는 격식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면 서도 독자 입장에서 읽기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확신 및 자신감으로도 읽힐 수 있다(Machin, 2016, pp. 105-106). 한편 양쪽이 고르게 정렬되진 않았지만 완전한 대칭성을 이룰 경우 격식성이 높아져 중대성과 진지함, 엄숙함이 느껴지며, 양쪽이 불균형하면서도 비대칭적일 경우는 높은 비격식성으로 인해 역동적이면서도 장난스럽고 유쾌한

느낌이 전달된다(Machin, 2016, p. 107).

필자는 상기에서 살펴본 타이포그래피 분석 항목 및 세부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문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이 작성한 번역 코멘트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 활용에 내재된 학습자의 해석과 표현 전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3.1 실습 대상 원문

본 연구는 영국 시인 에드워드 리어의 「The Owl and the Pussy-Cat」(Lear, 1871/1894)을 번역 실습 원문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총 3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유희성과 환상성, 비현실적 세계관, 논리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난센스 시(nonsense verse)의 대표작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해 반지를 찾아 나선 부엉이와 고양이의 여정을 환상적이면서도 유희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그림 2

에드워드 리어의 난센스 시 「The Owl and the Pussy-Cat」

<p><b>I.</b></p> <p>The Owl and the Pussy-Cat went to sea          In a beautiful pea-green boat:          They took some honey, and plenty of money          Wrapped up in a five-pound note.          The Owl looked up to the stars above,          And sang to a small guitar,          "O lovely Pussy, O Pussy, my love,          What a beautiful Pussy you are,              You are,              You are!          What a beautiful Pussy you are!"</p>	<p><b>II.</b></p> <p>Pussy said to the Owl, "You elegant fowl,          How charmingly sweet you sing!          Oh! let us be married: too long we have tarried:          But what shall we do for a ring?"          They sailed away, for a year and a day,          To the land where the bong-tree grows;          And there in a wood a Piggy-wig stood,          With a ring at the end of his nose,              His nose,              His nose,          With a ring at the end of his nose.</p>	<p><b>III.</b></p> <p>"Dear Pig, are you willing to sell for one shilling          Your ring?" Said the Piggy, "I will."          So they took it away, and were married next day          By the Turkey who lives on the hill.</p> <p>They dined on mince and slices of quince,          Which they ate with a runcible spoon;          And hand in hand, on the edge of the sand,          They danced by the light of the moon,              The moon,              The moon,          They danced by the light of the moon.</p>
---	--	---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The Owl and the Pussy-Cat」을 실습 원문의

로 선택하였다. 첫째, 논리적 의미와 전통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난센스 문학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해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상상하며 창조적으로 번역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서정적이면서도 동화적인 분위기에 유머를 가미한 시적 특성은 문학 번역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문학 작품, 특히 운문은 난해하면서도 번역하기 까다로운 장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몰입과 흥미를 이끌어내야 번역 과정에서 능동성과 주도성,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3연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언어유희를 통한 운율 및 리듬감, 역동적 서사 전개, 뚜렷한 감각적 심상,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 등 다양한 시적 요소를 두루 포함하고 있어 감상과 해석의 폭이 넓다. 이러한 특성은 텍스트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타이포그래피 번역 실습에서 다채로운 표현 가능성과 실험적 잠재성을 제공한다.

### 3.2 실습 과정 및 분석

번역 실습은 국내 통번역 학부 2학년 전공 영역에 개설된 영한번역 수업에서 수강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실습 단원인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창조적 시 번역>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1) 문학 작품 중 언어기호와 시각기호가 결합된 사례인 아이코노텍스트 그림책, 캘리그래피(calligraphy) 적용 시집, 구체시(concrete poetry) 등을 소개하고, 그 형태적 특징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시각기호를 활용한 문학 번역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후, 2) 실습 원문인 「The Owl and the Pussy-Cat」의 배경 및 내용, 시적 특징 등을 논함으로써 실습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주된 특징인 리듬감, 발음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를 비롯해 감각적 심상, 인물 간 관계성, 시적 정서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타이포그래피 번역이 자칫 ‘시각적 장식’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3) 영한 번역에 타이포그래피를 접목하는 실습이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타이포그래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즉, 원문의 의도를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미해 서체의 종류, 글자 크기, 색깔, 간격, 모양, 배열 등 텍스트의

시각적 형식을 선택해 번역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의 창조성은 원문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를 유지하면서도 번역가로서 다양한 언어적·시각적 표현 전략을 선택해 시적 효과를 새롭게 구현하는 능동적 번역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과업 설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였다.

실습에 사용할 도구 사용과 관련해, 4) 학생들이 다양한 타이포그래피를 접하면서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 안에서 상업용 무료 폰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안내하였다.<sup>1)</sup> 본 연구는 서체의 종류, 크기, 모양, 색깔, 배열 등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생성형 AI나 기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배경 이미지나 일러스트 등은 타이포그래피 선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5) 학생들은 이러한 과업 지시 사항을 숙지한 후, 개인별로 6일 동안 과제를 수행하였다. 모든 결과물은 연구 윤리 서약에 대한 학습자의 동의를 받은 후 분석에 활용되었다.

필자는 원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번역 결과물의 양상 및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 결과물과 번역 코멘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타이포그래피를 두드러지게 적용한 부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요소(형태·색깔·크기·배치·정렬 등), 의도한 효과, 언어기호 번역과의 관계성 등을 핵심 분석 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적인 미적 감각이나 디자인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과 번역 접근이 타이포그래피 활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타이포그래피 적용 양상 및 의도에서 추출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시각이미지 문법의 3가지 메타 기능(관념적·대인적·텍스트적)을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시적 세계의 재현>, <감각적 심상의 구체화>, <텍스트 형식의 재창조>라는 세 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1) 무료 폰트 제공 플랫폼으로 ‘눈누’와 ‘학교안심폰트’를 소개하여 실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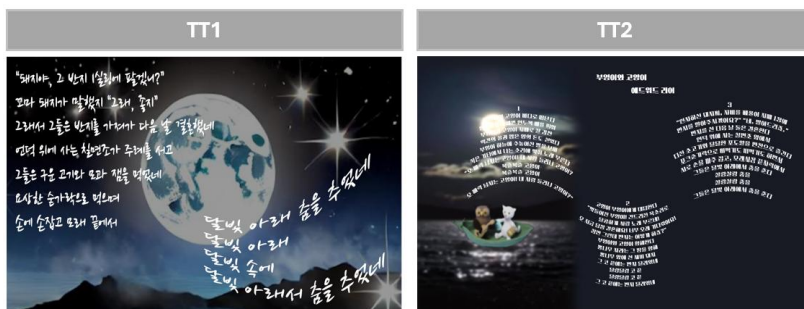
## 4. 분석 결과

### 4.1 시적 세계의 재현

에드워드 리어가 구현한 난센스 세계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번역문에서 재창조되었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The Owl and the Pussy-Cat」의 내러티브 및 서사 구성에서 느껴지는 환상성과 비현실성을 창조적인 타이포그래피 번역으로 재현했다. 예컨대 TT1의 학생은 “시가 가진 낭만적이고 로맨틱하면서도 잔잔하고 기묘한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글자의 기울기(slope)가 두드러진 비정형적 서체를 선택해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했고, 글자 색깔은 (배경에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리한) 보름달의 희푸른 색상과 묘하게 어우러지는 흰색을 선택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와 유사하게 TT2의 학생도 시 전체를 밤하늘과 대비되는 흰색 서체로 표현하고 모든 행을 넘실대는 파도 형상으로 배열함으로써 시에서 느껴지는 환상성과 모험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재창조했다.

그림 3

비현실성과 환상성의 시각적 구현



한편 <그림 4>와 같이 시 안에서 특정한 구성 요소(언어기호)를 선택한 후, 그 의미를 관련 시각 이미지와 결합한 번역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시적 요소의 형태와 의미를 반영한 번역



특히 시의 구성 요소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경험과 인식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타이포그래피가 지닌 해석적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학생 상당수는 주인공인 부엉이와 고양이의 형체 및 털 색깔을 반영한 타이포그래피 번역을 구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동물에 대한 학생 개인의 경험적 인식과 인물 관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번역 결과물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림 5>의 TT1과 TT2를 살펴보면, 올빼미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정사각형 형태의 서체에 곡선성 (curvature)을 가미해 신뢰감과 무게감을 준 반면, 고양이에는 상대적으로 각지고 가느다란 서체를 사용해 도도하고 섬세한 성격을 부각하거나 글자 가장자리에 장식성(flourishes)을 더해 화려한 느낌을 가미했다. 이러한 해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은 성별 구분으로 이어져, TT4와 같이 올빼미에는 남성의 어투를, 고양이에는 여성의 어투를 부여하는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림 5

시적 요소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반영한 타이포그래피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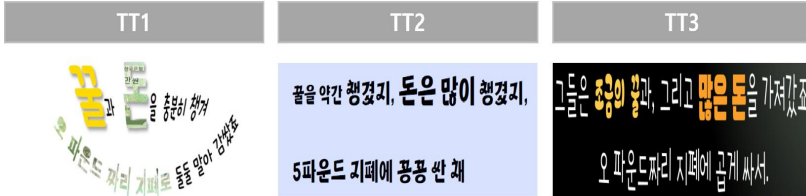
TT1	TT2	TT3
		
TT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상기의 TT3는 (고양이와 부엉이가 원하는) 반지의 소유자인 돼지를 권위 있는 ‘대왕’으로 설정하고, 명칭을 “반지대왕”으로 번역하는 언어유희를 구사했다. 특히 글자의 두께(weight)를 크고 굵게 설정해 ‘대왕’이 주는 위압감과 대담함, 거만함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지”라는 대사를 정돈되지 않은 불규칙한 서체(irregularity)로 표현함으로써 비현실적 세계의 혼돈과 유희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적 세계를 재현하는 타이포그래피가 시 번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시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원문 1연의 “They took some honey, and plenty of money,”에는 ‘some’과 ‘plenty of’ 사이의 수량적 대비, ‘honey’와 ‘money’의 발음 유사성을 통한 시적 효과 등이 집약되어 있다. <그림 6>의 사례는 이러한 수사적 기제가 문자만으로 동일하게 재현될 수 없는 경우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여준다.

그림 6

원문의 수사적 기법을 보상하는 타이포그래피 번역



예컨대 TT1에서는 ‘꿀’과 ‘돈’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되 다른 글자와 대비되도록 크게 키워 강조하고, 각 단어의 의미를 표상하는 노란색과 녹색, 만원의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번역 과정에서 상실된 발음 유사성의 효과를 창조적 방식으로 보상하고자 했다. 동일한 원문에 대해 TT2는 ‘꿀’과 ‘돈’의 수량적 대비를 “약간/많이”로 번역하고 글자 크기에 차이를 두어 독자가 이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TT3는 ‘꿀’과 ‘돈’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해 서체의 종류와 색상에 차이를 두었다. TT3의 번역 코멘트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꿀’을 부드러운 곡선형 서체로 표현했지만) ‘돈’을 번역할 때는 전체적으로 굵고 일정하며 각진 느낌을 주는 서체를 선택함으로써 돈에서 느껴지는 “각짐, 은행, 정갈함”의 이미지와 돈의 높은 가치를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그림 6>의 사례는 원문을 ‘시답게’ 만드는 수사적 기법을 언어기호 번역만으로 온전히 재현하기 어려울 때, 타이포그래피 활용을 통해 이를 보상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번역하기 난해한 난센스 요소도 타이포그래피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3연 결혼식 장면에서 등장하는 “runcible spoon”이나 2연에서 부엉이와 고양이와 함께 끝에 마주한 “Bong-Tree”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기에 독자의 시적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한다. 또한 고양이가 부엉이에게 보내는 찬사인 “You elegant fowl!”은 ‘평범한 새’(fowl)의 이미지에 ‘우아함’(elegant)을 부여하는 언어적 부조화와 과장된 격식으로 난센스 유머를 유발한다. 아래 그림을 통해 이러한 난센스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 양상과 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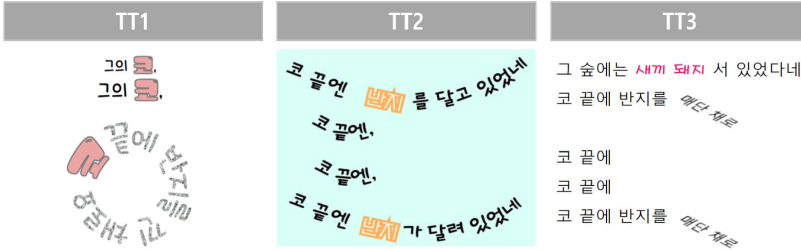
가상의 실체와 언어적 부조화 요소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TT1의 학생은 “runcible spoon”을 음차 혹은 직역하지 않고 재미와 유머를 더하는 “영똥한 스푼”으로 번역한 후, 반복되는 자음 ‘ㅇ’과 어우러지는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동그란 곡선형 서체를 적용했다. 이와 달리 TT2의 결과물은 “runcible spoon”을 “둥글둥글 뽀족뽀족한 손가락”으로 번역해 리어 특유의 아이리니와 유머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체를 활용해 형태와 의미의 일치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TT3의 “Bong-Tree” 사례에서는 나무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수직적 글자 배열을 통해 난센스적 요소를 가시화했으며, TT4의 “You elegant fowl!”은 글자 비율(height) 면에서 세로로 높고 길게 뻗은 가느다란 자춧빛 서체를 선택해 유표성을 높임으로써 고귀함과 우아함에 대한 학생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드러냈다.

독자의 예상을 뒤엎는 비현실적 이미지도 난센스 시의 작품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 2연의 “And there in a wood a Piggy-wig stood / With a ring at the end of his nose, / His nose, / His nose, / With a ring at the end of his nose.”는 ‘돼지’라는 익숙한 대상에 비현실적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자의 기대를 전복한다. 이렇듯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영똥하고 기묘한 상황은 <그림 8>과 같은 타이포그래피 번역을 통해 난센스적 유머와 상상력이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다.

그림 8  
기대를 전복하는 난센스 요소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상기 사례에서 학생들은 반지의 모양 혹은 코끝에 달린 반지의 움직임과 형태를 실마리로 삼는 번역을 시도했다. 가령 TT1은 “코끝에 반지를 낀 채로요”를 원형으로 배열하여 반지의 형태와 돼지 코의 둥그런 생김새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유머를 구사했고, TT2와 TT3는 코끝에 매달려 좌우로 흔들리거나 아래로 축 늘어진 반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에 더하여 각 사례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강조된 요소를 통해 시를 읽는 독자(학생)가 동일 장면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TT1은 ‘돼지 코’의 생김새와 피부색, TT2는 ‘반지’의 소재(금)와 광택, TT3는 ‘새끼 돼지’라는 존재 자체에 가시성을 높이는 서체와 색깔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각기호를 활용하는 타이포그래피 번역이 문학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적·주관적 해석을 드러내는 표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 감상과 이해를 유도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4.2 감각적 심상의 구체화

‘시’라는 언어기호에 타이포그래피로서의 시각기호를 결합하는 번역은 필연적으로 시각적 심상의 강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학생들의 번역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원문의 의미 요소가 이에 대응되는 시각적 형태로 ‘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창조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림 9>의 결과물은 원문의 요소가 타이포그래피의 창조적 활용을 통

해 강렬한 시각적 심상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림 9

원문의 시각적 심상을 강화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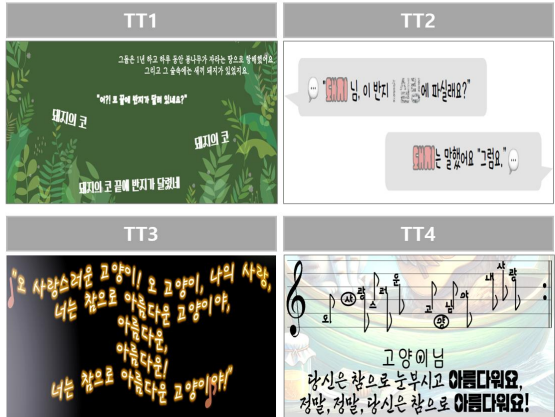
TT1	TT2
<p>발 밑에는 모래모래모래모래 모래 모래, 손에 손을 맞잡은 채,</p>	<p>잘게 다진 고기와 얇게 자른 모과를 먹었다네</p>

상기의 TT1은 원문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던 요소에 시각적 심상이 더해지면서 장면에 대한 번역가(학생)의 해석이 드러난 사례이다. 해당 학생은 결혼식 장면에서 등장하는 “And hand in hand, on the edge of the sand,”를 번역하면서 (연인이 춤을 추는 장소인) ‘모래사장’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타이포그래피를 구사했다. 그는 ‘모래’의 글자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연회색을 적용한 후 배경에 수십 번 반복 배치함으로써 작은 모래알이 모여 커다란 모래사장을 이룬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그중 일부에만 모래 색깔을 입혀 “모래가 한 움큼 있어도, 모래사장을 형성할 만큼 많이 있어도 결국 모래다”라는 자신만의 창조적 해석을 드러냈다.

또한 TT2는 원문에서 재현하지 못한 운율 기제가 시각적 심상의 강화로 보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부분의 원문은 결혼식 장면의 “They dined on mince, and slices of quince”로서, ‘mince’와 ‘quince’의 끝소리인 /-ns/가 완벽한 운율을 형성하며 결혼식의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학생은 원문의 음성적 기제를 동일하게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잘게 다진—얇게 자른”이라는 병렬 구조를 사용하는 동시에 해당 표현에 목표 독자의 경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시각적 심상을 가미했다. 번역 코멘트에 따르면,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썰린 고기와 (똑바로 자르고 싶었지만 결국) 비스듬하게 썰린 모과는 독자가 일상에서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시각적 심상 외에도 원문에서 느껴지는 청각적 심상이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한층 강화된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원문의 청각적 심상을 강화한 사례



아래 번역 코멘트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의 TT1은 원문 2연 말미에서 들어쓰기와 행같이, 반복을 통해 강조된 “His nose, / His nose,”를 제 3자가 부르는 코러스 효과로 전환해 청각적 심상을 강화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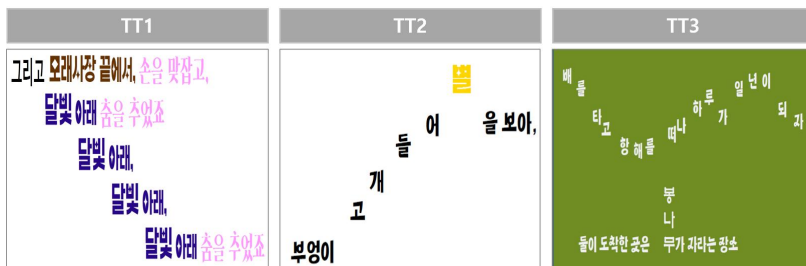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서 운율이 살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너무 번역투스러운 느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고민하다 글씨의 기울기를 달리해서 제 3자가 부르는 코러스처럼 보이도록 했다 ... 대사를 끝으로 퍼지듯이 위치를 잡아서 대사나 줄거리와는 다른 무엇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 [필자의 강조]

학생은 “대지의 코”를 원문과 동일하게 2번 반복했지만, 이를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기울여 숲속 배경 양단에 배치함으로써, 숲속 어디에선가 미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효과를 창출했다. 번역에 타이포그래피를 접목하는 과정이 문학 작품에 대한 창조적 해석과 감상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기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등장인물의 대사를 말풍선에 넣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화창 형태로 좌우 교차 배치하거나(TT2), 부엉이의 노래 가사를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배열해 음악의 선율

과 리듬을 형상화한 사례(TT3)는 원문에 ‘내재된’ 음성이 시각적 장치를 통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TT4는 오선지에 놓인 음표 머리가 노래 가사의 음절로 대체된 모습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각 음절이 서로 다른 음높이에 배치되면서 독자가 멜로디를 청각적으로 상상하거나 흥얼거리는 환기 효과를 유도했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번역 접근은 난센스 시 특유의 유희성과 감각적 심상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문학의 미학적 잠재력을 확장시키는 긍정적 가치가 있다.

한편 원문에 없는, 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감각적 심상을 부가한 사례는 번역 결과물을 통해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가(학생)의 해석과 감상, 몰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이포그래피 번역의 교육적 잠재성을 보여준다.

그림 11  
원문에 없는 동적 심상을 부가한 사례



예컨대 TT1은 글자 배치와 색깔 선택을 통해 부엉이와 고양이의 낭만적인 결혼식 장면을 시각적 심상과 동적 심상으로 재현했다. 3연 말미에서 반복과 들어쓰기, 행같이들 통해 강조된 “the moon”을 어두운 밤의 상징인 남색을 적용해 “달빛 아래”로 번역하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흐르듯 배치함으로써, 왈츠의 선율을 따라 유려하게 공간을 가로지르는 연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손을 맞잡고”와 “춤을 추었죠”에 선택 적용된 분홍빛은 서정적인 장면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타이포그래피로 더해진 동적 심상은 목표 독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를 좁혀 정서적 이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원문 1연에서 “The Owl looked up to the

stars above.”는 사랑 고백을 앞두고 감상에 젖은 부영이의 모습을 묘사하는 동시에, 길고 부드러운 모음 소리가 만들어내는 상승과 하강의 리듬감을 통해 고요하고 몽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장면을 “부영이 고개 들어 별을 보아”로 번역한 TT2는 천천히 하늘로 향하는 부영이의 시선을 우상향 글자 배열로 시각화하고, 정점에 위치한 “별”을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사각형 서체와 노란 색감으로 강조했다. 원문이 지닌 음성적 특징을 동일한 형태로 재현하지 않는 대신 그 효과를 시각적 차원으로 전이하고, 더 나아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동적 심상으로 구현함으로써 독자가 천천히 하늘로 향하는 부영이의 시선을 따라가며 감정에 이입하는 몰입 효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TT3에서 발현된 동적 심상은 원문의 주요 서사, 즉 사랑의 완성을 위한 등장인물의 오랜 여정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원문의 “They sailed away, for a year and a day,”에서는 끝소리가 유사한 ‘away’와 ‘day’가 시적 운율을 자아내지만, TT3는 번역 결과물인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 하루가 일 년이 되자”를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으로 배열함으로써 바다와 항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파도를 따라 역동적으로 오르내리는 배의 모습을 환기해 부영이와 고양이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암시하는 효과를 냈다.

#### 4.3 텍스트 형식의 재창조

타이포그래피의 창조적 사용은 텍스트의 구성 및 형식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원문 「The Owl and the Pussy-Cat」의 정렬 방식(alignment)을 살펴보면, 모든 연에서 동일하게 2, 4, 6, 8, 11행을 들여 쓰고, 각 연의 말미에서 반복되는 9, 10행(“You are”, “His nose”, “The moon”)은 더욱 깊숙이 들여 쓰는 배열을 통해 시각적 강조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그림 12>의 ST와 같이 전체적으로 양쪽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우가 불균일하고 대칭성이 미약한 특징을 보인다. 텍스트 정렬이 갖는 의미 잠재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정형적 구성은 자유롭고 활기차면서도 장난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Machin, 2016, p. 107)에서 리어 특유의 난센스적 상상력과 맞아떨어진다.

그림 12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배치 및 정렬 비교

ST	TT1
<p>II.</p> <p>Pussy said to the Owl, "You elegant fowl, How charmingly sweet you sing! Oh! let us be married; too long we have tarried: But what shall we do for a ring?" They sailed away, for a year and a day, To the land where the bong-tree grows; And there in a wood a Piggy-wig stood, With a ring at the end of his nose, His nose, His nose, With a ring at the end of his nose.</p>	<p><b>고</b>양이가 울빼미에게 말했어요. "우아 새여! 정말 매력적으로 노래를 하시네요! 오, 결혼해요! <b>너무</b> 오래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반지를 어떻게 마련하죠?" 그들은 항해를 떠났어요, 일 년하고 하루 동안. <b>봉 나무</b>가 자라는 땅으로. 그리고 숲 속에서 <b>돼지</b>가 서 있었죠, 코 끝에 반지를 끼운 채로. 그의 코, 그의 코, 코 끝에 반지를 끼운 채로.</p>
TT2	TT3
<p>야옹이가 부엉이에게 말했네. <b>정말</b> 근사한 새님이군요! 당신의 노래소리는 <b>참</b>으로 달콤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결혼해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반지는 어디서 구하죠? 그들의 항해는 계속 되었는데, 1년하고 하루 동안, 봉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떠났네. 그 숲 속엔 작은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었지, 코 끝에 반지를 끼운 채로, 코 끝에, 코 끝에, 코 끝에 반지를 끼운 채로.</p>	<p>I 이옹이는 부엉이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b>우아한</b> 새여! <b>엄</b>마나 매력적이지 <b>아니</b> 달콤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오, 우리 빨리 <b>결혼</b>해요! 너무 오랫동안 <b>기</b>다렸어요 하지만 <b>반</b>지는 어떻게 하죠?" 그들은 <b>배</b>를, <b>한</b>하고도 <b>하루</b>를, 티고 <b>봉나무</b>가 자라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 숲에는 <b>새끼돼지</b>가 <b>서</b> 있었어요 돼지로 끝에 <b>반</b>지를 걸치고요 돼지로 돼지로 돼지로 끝에 <b>반</b>지를 걸치고요</p>

총 21편2)의 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구조가 보존된 결과물은 5편이었으며 대부분은 상기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렬 방식이 사용되었다. 예컨대 TT1은 양쪽 정렬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문과 유사하지만 가운데 정렬로 완전한 좌우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격식성이 높아졌으며, 시각적 균형과 무게감으로 인해 텍스트의 진지함과 중대성이 강조(Machin, 2016, p. 107)되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TT2는 원문에 비해 정연하고 유기적인 왼쪽 정렬을 적용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지만, 이로 인해 원문이 주는 자유롭고 유쾌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TT3는 하나의 연(2연)을 2개로 분

2) 총 28명의 수강생 중 과제 미제출 학생 7명을 제외하였다.

할하는 파격적인 정렬 방식을 사용했다. 즉, 반지에 대한 고양이의 물음기 오른쪽 정렬로, 이로 인해 시작된 여정이 왼쪽 정렬로 배치됨으로써 서사의 극적 전환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처럼 텍스트의 배열과 정렬 방식이 시적 의미와 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시의 형태가 갖는 의미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시 자체의 번역만큼 문학 번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라는 점을 암시한다.

한편 텍스트의 구성 및 형식과 관련해 서체의 형태 및 색깔을 활용하여 동일 요소 간 표층결속성(cohesion)을 구현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동일 요소 간의 시각적 결속성 구현



상기의 TT1은 동일 요소를 같은 색깔과 형태의 서체로 표현해 전반적인 통일감을 주었으며, TT2는 각 동물의 모습 및 성격을 형상화한 서체와 색깔을 선택해 ‘올빼미’와 ‘고양이’를 표기하고, 해당 동물의 노래와 대사도 유사한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서사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물리적 차원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관계도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표층결속성 구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림 14>의 결과물과 번역 코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영이와 고양이가 주고받는 대화는 ‘주체’(부영이/고양이)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이 통했다는 측면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었다.

그림 14

심리적 관계를 반영한 시각적 결속성 구현

1연 끝부분(부영이의 노래)	2연 첫부분(고양이의 화답)
<p>부영이는 <b>바깥이</b>는 <b>별</b>들을 바라보다 작은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p> <p>“오, 사 러 른 고 방 내 사랑 고 사 러 른 고 방 내 사랑 고 랑 스 버 오, 방 바, 그 대 이 지 바 구 내 는 정 말 바 름 답 정 말 이 지, 정 말 이 지, 정 말 이 지, 그 대 나 바 름 지 몰 래 가 별 마 름 지 다 른</p>	<p>고양이가 부영이에게 말했다, “<b>이</b> <b>고</b> <b>상</b> <b>한</b> <b>새</b> <b>같</b> <b>으</b> <b>니!</b> <b>어</b> <b>떻</b> <b>이</b> <b>렇</b> <b>게</b> <b>매</b> <b>력</b> <b>적</b> <b>이</b> <b>면</b> <b>서</b> <b>사</b> <b>랑</b> <b>스</b> <b>러</b> <b>운</b> <b>지</b> <b>몰</b> <b>라!</b> <b>오</b>, <b>우</b> <b>리</b> <b>결</b> <b>혼</b> <b>하</b> <b>는</b> <b>게</b> <b>중</b> <b>겠</b> <b>어!</b> <b>더</b> <b>이</b> <b>상</b> <b>꾸</b> <b>물</b> <b>거</b> <b>릴</b> <b>순</b> <b>없</b> <b>어.</b> <b>그</b> <b>런</b> <b>데</b> <b>반</b> <b>지</b> <b>는</b> <b>어</b> <b>떻</b> <b>게</b> <b>이</b> <b>런</b> <b>해</b> <b>어</b> <b>중</b> <b>을</b> <b>까?</b>”</p> <p>[학생 번역 코멘트] “<b>고양이가 부영이에게 하는 말 역시 애정을 표현하는 것임을 고려해</b> 이가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b>1연</b>에서와 <b>같은 붉은색을 적용해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표현</b>해 보았다. 또한 고양이와 부영이는 각각 다른 주체이므로 고양이의 경우 부영이에게 건네는 말을 하트가 포함된 ‘학교안심 불방학 R’ 폰트로 표현해 색다른 느낌의 애정을 표현했다.”</p>

한편 학생들은 동일한 형식과 형태를 보이는 각 연의 말미에 주목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문에서는 3연 모두에서 9, 10행(“You are”, “His nose”, “The moon”)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와 같은 언어기호의 반복이 학생들에게 ‘강조 의도’로 인식되면서, 글자 크기의 변주나 색깔 변화, 굵기 (weight) 조정과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일례로 아래에 제시된 <그림 15>의 사례는 모든 연의 8-11행에 무게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서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굵게 표시함으로써 해당 부분이 각 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으며, 글자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한 음성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도 각 연의 해당 부분을 서로 다른 색깔로 처리해 서로 구분되는 서사임을 암시했다.

그림 15  
유사 형식 간의 시각적 결속성/통일성 구현

1연 끝부분	2연 끝부분	3연 끝부분
<p>작은 기타를 툭기며 노래했어요. "오, 사랑스러운 고양이여! 나의 사랑,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고양이인지! 정말이지, 정말이지!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고양이예요!"</p>	<p>그곳 <b>순속</b>에서 한 돼지가 서 있었죠, 코끝에 반지를 낀 채로요, 코끝에, 코끝에, 반지를 낀 채로요.</p>	<p>그리고 모래 가장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b>달빛 아래 춤을 추었죠.</b> <b>달빛 아래,</b> <b>달빛 아래,</b> <b>그들은 달빛 아래 춤을 추었습니다.</b></p>

## 5. 결론

본 연구는 기호 자원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에 내재된 의미 잠재력에 주목하고, 학부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접목한 시 번역 실습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문학 번역 교육에서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가능성 및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에드워드 리어가 발표한 난센스 시의 대표작 「The Owl and the Pussy-Cat」의 번역 결과물과 번역 코멘트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에 구현된 관념적 세계가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번역문에 재창조되었다. 등장인물 및 구성 요소의 형태와 의미를 시각화한 사례뿐만 아니라 난센스 문학의 특징인 비현실성, 환상성, 유희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선택적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타이포그래피가 시 번역의 ‘난제’를 해결하거나 시적 효과를 배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는, 시 번역에서 멀티모달 도구로서의 타이포그래피가 갖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타이포그래피는 본질적으로 언어기호에 시각적 의미 자원을 더하는 도구이지만, 학생들의 번역문에서는 시각적 심상뿐만 아니라 청각적 심상이 강화되거나 동적 심상이 부가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감각적 심상이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원문 시의 심상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접근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 해석과 감상의 산물이며, 번역 문학의 미학적 잠재력을 확장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

셋째,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의 구성 및 배치, 형식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도 적용되었다. 가령 서체의 형태나 색깔을 통일함으로써 외적·내적으로 연관된 요소 간의 표층결속성을 구현하거나, 텍스트 정렬 방식을 변환해 (원문과는 사뭇 다른) 특정한 정서와 느낌을 환기한 사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활용해 텍스트 간의 위계를 조정하거나 의미 해석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예증하는 동시에, 타이포그래피 등의 시각적 요소를 접목한 번역 실습에 메타언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 생성과 정서적 효과에 관여하는 기호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시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번역 결과물과 번역 코멘트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 활용이 직관적 선택이 아니라 해석과 표현의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실습은 소규모 수업 환경에서 특정 텍스트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를 도모하기 어렵고, 번역 결과물의 품질과 수용자 반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 및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타이포그래피를 모든 시 번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이라기보다 특정 텍스트와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해석적·표현적 자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멀티모달 번역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문학 번역 교육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향후 번역 교육에서 언어기호와 시각기호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설계 및 이론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Lear, E. (1871/1894). *Nonsense songs, stories, botany, and alphabets*. Roberts Br

others. <https://www.gutenberg.org/cache/epub/13647/pg13647-images.html#wlandpussy>

## <2차 자료>

- 김수명, 이지민. (2017). 웹툰 『신의 탑』 그림텍스트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21(1), 1-25.
- 김승연. (201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시각화 연구 —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0(1), 25-55.
- 김혜영. (2022). 영화 포스터의 카피 번역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20(3), 87-115.
- 마승혜, 김순영. (2021). 만화 번역전략 및 역사 만화 번역 특수성: ‘위안부’ 만화 『풀』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8), 73-101.
- 박건영, 조성은. (2025). 영화 <작은 아씨들>의 리메이크 전략: 멀티모달리티를 중심으로. 영미연구, 64, 1-36.
- 박수진. (2014). 박물관 아이덴티티를 위한 타이포그래피 상관 요소의 활용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5(5), 227-236.
- 선영화. (2021). 귀로 듣는 슬랩스틱 코미디 — <라바 아일랜드>의 화면해설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3), 135-165.
- 선영화. (2025). 생성형 AI 기반 번역 교육의 창조성 함양 효과: 광고 카피의 시각적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6(2), 105-138.
- 성승은, 우동찬, 박건영. (2022). 언어유희, 리듬, 그림의 만남: 셸 실버스타인의 *A Light in the Attic*의 번역. 번역학연구, 23(5), 147-181.
- 소장섭. (2025. 3. 14.). 여기어때, 브랜드 서체 ‘잘난체’로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 BabyNews.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00>
- 송희진, 문철. (2014). 우리나라 그림책의 프랑스 번역판의 파라텍스트 변형 연구 — 판형과 제본, 표지, 면지, 종이 재질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6), 267-281.
- 신나안, 신진원. (2017). 영화포스터 번역에서의 상호관계적 기능 연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97-126.

- 윤아름. (2020. 4. 9.). 동서식품, 한정판 ‘맥심 커피믹스 레트로 에디션’ 출시. CEO스코어데일리.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0040910252041736>
- 윤재성. (2001). 시각언어로서의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4(1), 71-81.
- 이경희. (2022). 소설에서 만화로의 각색에서 재현된 시각문법 분석: 조지 오웰의 『1984』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2), 191-224.
- 이성엽. (2017). 그림책 번역: ‘그림 속 텍스트’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69-189.
- 이지민, 마승혜. (2024). 상업적 측면에서의 문화번역 전략 분석: K-라면 패키지 디자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4), 183-209.
- 정근수. (2017). 그림책 타이포그래피의 기호체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4), 1-30.
- 최진실. (2019). 재미있는 교양영어 수업을 위한 자막번역 교육 활용방안. 번역학연구, 20(4), 219-246.
- 최희경. (2024). 소설 번역의 그래폴로지 문체론적 접근: 황순원의 「소나기」 번역 사례 연구. 번역학연구, 25(4), 145-181.
- 홍정민. (2022).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뽀롱뽀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3), 125-153.
- 홍지경, 김성계. (2024). 그림책에서의 효과적인 아이코노텍스트 적용 사례를 통한 타이포그래피 분석 — 2017년~2023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5(4), 455-470.
- Borodo, M. (2015). Multimodality, translation and comics. *Perspectives*, 23(1), 22-41.
- Carpi, B. (2020). A multimodal model of analysis for the translation of songs from stage musicals. *Meta*, 65(2), 420-439.
- Freitas, E. S. L. (2004). Similar concepts, different channels: Intersemiotic translation in three Portuguese advertising campaigns. *The Translator*, 10(2), 291-311.
- Günay, M. (2024). The impact of typography in graphic design. *International*

- Journal of Eurasia Social Sciences (JJOESS)*, 15(57), 1446-1464.
- Kress, G., & Van Leeuwen, T. (199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Routledge.
- Kress, G., & Van Leeuwen, T. (2001). *Multimodal discourse: The modes and media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Hodder Arnold.
- Laviosa, S. (2007). Learning creative writing by translating witty ad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 197-222.
- Lupton, E. (2004). *Thinking with type: A critical guide for designers, writers, editors, and student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Machin, D. (2016). *Introduction to multimodal analysis*. Bloomsbury Publishing.
- Millán-Varela, C. (2004). Exploring advertising in a global context: Food for thought. *The Translator*, 10(2), 245-267.
- Rodríguez-Arcos, I. (2024). Advertising translation in social media: Multimodality and simultaneity in a global campaign. *Babel*, 70(1-2), 111-137.
- Serafini, F., & Clausen, J. (2012). Typography as semiotic resource. *Journal of Visual Literacy*, 31(2), 1-16.
- Unsworth, L., Meneses, A., Ow Gonzalez, M., & Castillo, G. (2014). Analysing the semiotic potential of typographic resources in picture books in English and in translation. *International Research in Children's Literature*, 7(2), 117-135.
- Van Leeuwen, T. (2006). Towards a semiotics of typography. *Information Design Journal*, 14(2), 139-155.
- Wicaksono, B. P., Nababan, M. R., & Khrisna, D. A. N. (2021). Multimodality and translation: How typography affects the quality of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nguistics, Literature and Translation*, 4(4), 228-232.

## Exploring typography as a multimodal tool in poetry translation education

**Young-hwa Sun**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undergraduate students use typography as a multimodal tool within literary translation education, specifically in translating poetry. Students translated Edward Lear's nonsense poetry, and their translations and translation commentaries were both analyzed. Three key findings emerged. First, students focused on central features of nonsense literature, including its unreality, incongruity, and playfulness, and employed typography to preserve Lear's ideational world. In some cases, they creatively used typography to overcome translation challenges or to enhance poetic effects. Second, while typography inherently integrates linguistic and visual semiotic resources, students' translations extended this verbal-visual interplay into a broader sensory spectrum, strengthening auditory and visual imagery, and introducing kinetic imagery. Third, typography was applied to modify text composition, layout, and alignment. The use of the same fonts or colors created cohesion among related textual elements, while changes in alignment evoked specific emotions and moods. This study underscores typography as a semiotic resource that contributes to meaning-making and emotional effects, highlighting its educational and practical potential as a multimodal tool in poetry translation pedagogy.

**Keywords:** Typography; multimodality; poetry translation; nonsense literature; translation education

**키워드:** 타이포그래피, 멀티모달리티, 시 번역, 난센스 문학, 번역 교육

256 번역학연구, 27(1)

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강사

[sunyh12@naver.com](mailto:sunyh12@naver.com)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